

생약재인공생산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발표회 특강 이종용 회장

국내 생약재의 수요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생약재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원과 생산과정의 확실치 않은 값싼 중국산 생약재가 가격이 저렴한 탓에 수입만으로 부족하게 수입되고 있다.

90년도에 9천ha에서 2만3천ha를 생산하던 생약재가 5년이 지난 95년도에는 61% 증가한 1만5천ha에서 거의 배가 되는 5만6천ha를 생산했음에도 수입은 7만4천여톤으로 국내 총생산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생약초재취도 7천3백66t이던 91년에 비해 4년이 지난 95년 자연산 채취량은 4천8백68t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또, 이 중 95년은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 상승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생약재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출현황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다.

지난 70년대만 하더라도 97개 품종을 1천8백만불 상당 수출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30개 품종 미만이다. 최근에는 생약재의 가장 큰 소비자인 제약회사에서 국내산 생약재 대신 수입약재를 들여온다.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국내산 재료 시장에서 변칙유출이 빈번해지고 있다.

문제는 시제품으로 반입된 이들 품종들이 약재로 시장에서 변칙유출되고 있다. 국내산 약재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 품종을든 자유통계 반입해 수출할 수 있다. 국내 소비량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중국은 재래종 지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가. 15년전부터 불법에 관해 꾸준히 연구한 결과, 과잉수출에 따른 수탈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수탈에도 훨씬 못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94년부터 생약재와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94년부터 생약재와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사설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생약초는 약성이 뛰어나 70~60년대만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홍콩, 미국등지로 상당량 수출도 해 온 자원식물이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농촌 노동인력의 감소로 자연산 채취 인구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자연 채취량도 지난 91년 7천3백66톤에 비해 4년이 지난 95년에는 4천8백68톤으로 급감했다. 채취한다 하더라도 값싼 수입약재에 밀려 판로를 찾을 수 없는 데 하루 다리품도 건지기 힘들 정도로 시세가 바닥세인 탓이다.

반면 수입량은 매년 늘어나 91년 7만2천톤에서 95년이 7만4천톤으로 불과 4년 사이에 2천여톤이나 증가했다. 고품질의 우리 것은 사냥해 놓은 채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마침 한국생약협회가 오는 21일 자생약초 서식지를 답사하고 채취도 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우리생약살리기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결 성숙한 우리생약살리기의 하나로 평가할 만하다. 전문가와 함께 자생약초 서식지를 돌아보고 직접 채취도 함으로서, 우리 약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협회 회원은 물론이고 관련업계와 학계에서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생약재를 수입개방화로 부터 우리 약재를 지켜내고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차원의 우리생약살리기운동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식품원료, 약재로 변칙 유통 문제 주산지 육성, 전문연구기관 설립

가. 15년전부터 불법에 관해 꾸준히 연구한 결과, 과잉수출에 따른 수탈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수탈에도 훨씬 못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94년부터 생약재와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94년부터 생약재와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약재 연간유통규모

년도	'91	'92	'93	'94	'95
구분					
년간유통 금액(억원)	3,901.1	5,345.4	4,690.7	5,310	5,700
국산 생산량 (M/T)	25,646	31,187	37,393	35,295	56,024
내수 금액(억원)	3,417.1	3,850.4	3,290.7	3,433.5	3,400
수출 품목수(개)	236	272	301	304	300
입수량 (M/T)	72,587	68,005	35,430	79,543	73,385
산 금액(억\$)	1.32	1.33	1.34	1.80	2.01

※국내산 금액은 월평균 도매세, 수입산 금액은 수입원가+유통마진 포함금임.

이러한 여러가지 모순과 국내생약재의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산지별 육성과 계획생산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세계화 추세에서 우리 생약재도 품질의 차별화 전략이 아니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종래의 생산과정을 거쳐 수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연구실험을 거쳐 수입산에 비해 우리 것이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낼 필요가 있다. 생약재의 고품질화를 위한 재배기술, 건조방법 등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 내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도 시급하다. 하절기에 막판이나 하수오염 등 생약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생약재의 이용가능도를 높여 수출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슈퍼씨비닐 - 종자 절감에 감탄하고 인력절감에 놀란다

■ 슈퍼씨비닐, 이런점이 좋습니다.

1. 파종, 복토, 비닐멀칭작업을 한번에 할수가 있어서 시간과 인력이 대폭 절감됩니다.
2. 우수한 씨앗만을 엄선하여 필요간격에 따라 정확히 점포할 수 있으므로 발아율이 뛰어날 뿐더러 귀중한 씨앗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비닐 멀칭으로 인해 발아와 성장이 빠르므로 단기 수확이 가능하며 품질도 뛰어납니다.
4. 제조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제조작업이 용이합니다.
5. 파종간격이 일정하여 기계화가 용이합니다.

슈퍼씨비닐 적용작물 품종 소요량 (250평기준)

작목	슈퍼씨비닐 종자소요량	작목	슈퍼씨비닐 종자소요량
감	5홉	디우현삼	10홉
황금도라지	4홉		15홉
	15홉		3홉

기타 당귀, 백지, 방풍, 강활, 허수오 등 모든 미세약초종자는 슈퍼씨비닐 기공이 가능하며 그 소요량이 대폭 절감됩니다. 자세한 재배방법은 문의바랍니다.

■ 기존씨비닐의 단점을 완전 보완해 발아율이 뛰어납니다.

기존 씨비닐
지표면 씨앗부위가 고르지않으면 발아가 고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필요이상의 씨앗을 불이게되 씨앗 소비는 물론 속은 작업도 더뎠

개발된 슈퍼씨비닐
씨앗 부착부분을 정밀가공하여 작은 요철에서도 땅에 밀착되므로 발아율이 대폭향상되어 종자소비량이 극소화됨

시닐농산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2-4 풍전빌딩302호 TEL: 449-8280~1 '96년 슈퍼씨비닐을 선택해주시는 중형 작유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